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67% 급증... 건전성 관리 '주의보'

상반기 순익 1조618억... 67% 늘어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개선
대출 급증으로 이자이익 증가 요인

올 상반기 저축은행 순이익이 67% 급증하면서 커진 몸집 만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8억원(66.9%) 증가했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3895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88조원으로 전년 말 77조6000억원 대비 10조4000억원(13.4%)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대출은 48조9000억원으로 법인대출 위주로 13.1%(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억원, %, %p)

구분	2020.6월말	2020말(A)	2021.6월말(B)	증감(B-A)	증감률
BIS기준 자기자본(A)	102,441	109,891	123,970	14,079	13
위험가중자산(B)	691,346	772,222	881,917	109,695	14
BIS비율(A/B)	14.82	14.23	14.06	△0.17	-

/금감원

은 신용대출 위주로 급증, 3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규모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272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11.3% 증가한 10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연체율은 2.7%로 지난해 말 대비 0.6%포인트 하

락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1%포인트 줄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작년 말보다 0.6%포인트 하락, 3.6%로 집계됐다.

필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적립률은 110.1%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대손충당금 비율은 대손충당금을 고정 이하여신으로 나눈 비율로 통상 100%를 상회하는 경우 현재의 문제여신이 은행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모든 저축은행

은 적립 필요액의 100% 이상을 적립해 놓은 상태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06%로 지난해 말 14.23%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14.2%로 순이익 증가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율(12.8%)을 소폭 웃돌았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출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 자산 유형별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산출한 자산 규모다.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도출되는 만큼 위험자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올해 들어 저축은행은 여러차례 위험자산 증가로 인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A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저축은행 업계에서 1·2

위를 차지하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위험가중자산이 자기자본 대비 급격히 상승하면서 BIS비율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포인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충자본 미달 시엔 이익배당이 제한되며 자기자본 확충 계획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등 외형 확대 정책이 잠재부실 요인이 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소환 기자 think@metroseoul.co.kr

배달 오토바이, 개인용 보다 사고율 15배

개인용 자동차 보다 7배 높아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의 약 30%

배달전문업체(유상운송) 이륜차의 교통사고율이 개인용 자동차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2일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배달 전문 이륜차는 1대당 1년에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5년(2016년~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이륜차 용도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8806건에서 2020년 1만793건으로 23% 증가했다.

이륜차 용도별 사고 건수는 배달전문업체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했다. 사고율도 높아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1대당 연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비유상운송 이륜차 사고율보다도 7배 높은 수준이다.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보다는 15배나 높다.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 점유율(45.6%)보다 1.5배 높았다. 또한 5건 중 1건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를 점유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10건 중 4건(38.1%)이 과속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앞차량과의 추돌사고다.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차로

내 사고도 24.2%가 발생해 유상운송 이륜차 사고 다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배달 앱 이용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차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등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과 난폭 운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계도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행 상황을 이륜차 운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 확대 등의 다각적인 운전자 책임의식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최소 운전 경력 및 사전 안전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농협금융, 고려대와 AI 금융서비스 협약

인공지능 활용 금융서비스 연구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

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농협금융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고객이 체감하는 올 디지털(All Digital) 전환'을 위해 고객경험 제고에 방점을 두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려대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전문 기술을 활용해 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최신 연구 트렌드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상호 관련 사업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상래 농협금융지주 디지털전략부부장(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조석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이상래 농협금융지주 디지털전략부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협금융의 DT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고려대학교의 연구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농협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소환 기자

우리금융, 예보와 추석맞이 취약계층 지원

'우리행복상자' 전달식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우리행복상자'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우리행복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한과, 떡국떡, 혼합잡곡, 김, 장아찌 등 명절 식품과 일상 먹거리 등 총 10종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구성해 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매출 향상에도 힘을 보탤다.

우리은행 전국 영업본부 및 예금보험

공사 소속 임직원들은 추석 전에 총 2000여개의 우리행복상자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산하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이웃과 소상공인, 농가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웃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으며, 항상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 19



지난 10일 서울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우리행복상자 전달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첫번째),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 생활자금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선(善)한 가게 ▲방역 취약계층 대상 18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장애인 마스크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소아암 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KB국민銀, 비대면 외환거래 시간 확대

기존 보다 50분 연장

KB국민은행은 비대면 기반 외환 거래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거래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외환 거래 이용 시간 확대 시행으로 기존 영업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의 ▲해외송금 ▲국내 외화자금 이체 ▲외화 예금 입출금 거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로 연장된다. 서비스 중 해외송금 등의 일부 거래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시간 역외시장 정보를 활용해 주간에만 이뤄지던 42개 통화의 환율 고시가 트레이딩부 자본시장 런던

데스크를 통해 야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고객이 직접 매대 또는 예약주문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외환매대서비스인 KB환율픽서비스가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1시간 30분 연장된 오후 7시까지로 거래 가능 시간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야간에도 글로벌 외환시장에 연동된 환율로 외환 매매가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2일 "향후 외환거래 거래 가능 시간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외환 고객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